

■ 교회소식 ■

1. 성서학당 : 오늘 오후집회는 청파성서학당입니다.
2. 중고등부수련회 : 중고등부 수련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파주 쇠꼴 마을에서 열립니다. 좋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특강 : 다음 주일 오후에 특강이 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일하는 김세진 교우가 강의합니다.
4. 신앙실천 : 평소 눈여겨 보지 않았던 작은 생명들에게 말을 건네 봅시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유아유치부 : 7월 8, 15, 22일 (교회)
 아 동 부 : 8월 19-20일 (강화 베로니카네 집)
 중 고 등 부 : 7월 27-29일 (파주 쇠꼴마을)
 청 년 부 : 8월 17-19일 (용인 향린교회 수양관)

| | |
|------------|----------|
| 다음 주 설교 본문 | 사 25:6~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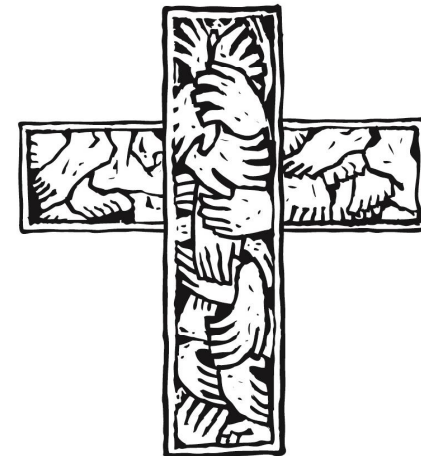
| 다음 주 예배위원 | 설교 | | 기도 | 성경봉독 |
|-----------|-----|-----|------|------|
| | 1부 | 김기석 | 공동기도 | 인도자 |
| 2부 | 김기석 | 박범희 | 곽상준 | |

| 7월 | 1부 영접위원 | 이순용 | 헌금위원 | 김민화 |
|----|---------|-------------------------|------|-----|
| | 2부 영접위원 | 김정민 이국노 문홍일 이해령 최은미 양경해 | | |
| | 2부 헌금위원 | 이한림 정경례 | | |

| | | | |
|----------|---------------------------------|-----------|-----|
| 오늘 식당 봉사 | 이현숙 이은미 손미자 이수경 김정미 임당재 이국노 신정훈 | | |
| 다음주식당봉사 | 이소애 이소혜 박유경 김지현 김해선 남인자 강세기 김성우 | | |
| 오늘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 | 다음주설거지봉사 | 청년부 |
| 커피 판매 봉사 | 6여선교회 | 다음 주 주차봉사 | 박기영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9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홍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느리게 걸더라도 꾸준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거리의 노동자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생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 땀방울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주님, 뜨거운 차 안에 방치된 채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 사회가 어린 생명뿐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우리의 눈 밖으로 내모는 것은 하나님을 내모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시130:7,8 인도자
 ▲ 교 독 문 28. 시편 63편 다 함께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윤성종 권사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212.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다 함께
 ▲ 성경봉독 잠 8:32-36 I. 인도자
 II. 김재환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I.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마중물 찬양대
 II. 나의 하나님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대정 강혜린 김명숙 김명희 김선지 김영란 김영미 김용진 박효선 김재환
 김진선 김정훈 이진영 김종락 박영신 김준호 광혜자 김창숙 김은종 김충실
 조아라 김태정 김태한 박기태 박병구 박영희 박옥순 박재우 정충원 박영진
 박지혜 서동우 서해나 송남필 송형운 하미림 신영옥 엄소현 오미숙 오민용
 우수덕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은종인 이부곤 이재문 이주경 안상숙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임광호 조경자 조관행 홍선희 조미선 최옥진 한지원
 허신열 현 진 홍순구 안홍숙

감사헌금

강혜린 권미숙 권정미 김반야 김용진 박효선 김진혁 신다현 김향자 나린
 박수민 박재영 이현정 박진주 송동준 김진경 유중희 윤경석 윤선호 임선아
 이상도 이재삼 전정현 임종수 장현희 전길남 김경희 최미선 최미자 최소라
 고인성 무명7

생일감사헌금

오보영

녹색꿈헌금

김영락 무명1

■ 집 회 안 내 ■

| 예배 | 시간 | 장소 | 예배 | 시간 | 장소 |
|------|-------|-------|-------|-------|------|
| 유아부 | 10:50 | 유아부실 | 1부 예배 | 09:30 | 대예배실 |
| 유치부 | 10:50 | 유치부실 | 2부 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성서학당 | 13:30 | 대예배실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1:00 | 교육관 |
| 청년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 마음으로 읽는 글 ■

아버지

- 윤동재

우리 아버지는
밭 일곱 마지기와 논 다섯 마지기
농사를 짓는
키가 작달막한 농부입니다.

산비탈 밭 두 마지기엔/ 천궁과 향귀를 심고
우리 집 뒷밭엔 고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날이 가물어
심어 논 고춧모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아버지는/ 나하고 밤에 잠을 자다,
“옥숙아, 비 오제. 비 오는 소리제.”/ 하고 자주 헛소리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헛소리에 놀라 깨어/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 보면
밤하늘에는 별만 총총.


아버지는 고단하신지/ 자면서도 식은땀을 흘리십니다.

아버지의 식은땀을/ 흠이불 자락으로 사알짝 닦아 드리고
아버지의 손을 꼬옥 쥐 채
나는 다시 잠을 잡니다.

- 옥숙아, 비 오제. 비 오는 소리제.
어느 틈엔가 잠결에 다시 들려오는 소리
그러나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잡니다.
새벽까지 그냥 잡니다.

| | | | | |
|----------|---|--------------------------|-------|--------|
| 말 씬 | | 지혜의 초대 | | 김기석 목사 |
| 거듭기도 | | | | 다 함께 |
| 2부찬 양 | | | | 브라스밴드 |
| ▲ 봉 헌 |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 다 함께 |
| ▲ 봉헌기도 | | | | 담임 목사 |
| 공동체 소식 | | | | 담임 목사 |
| ▲ 평화의 인사 | | | | 다 함께 |
| ▲ 보냄의 말씀 | | | | 다 함께 |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세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에 기꺼운 마음으로 응답하며 사십시오. 그릇된 삶을 뒤로하고 힘겹더라도 진리와 사랑과 평화의 길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 | | |
| 다 함 께: | 아멘. 주님, 우리를 참된 생명의 세상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달게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그릇된 삶의 행실을 버리고, 날마다 진리와 사랑과 평화를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의 끝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 | | |
| ▲ 찬 양 | | 635. 주의 기도 | | 다 함께 |
| ▲ 축 복 | | | | 담임 목사 |

| | |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일 집회 |
| 청파성서학당 |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단체 소개 ■

제법이다制法利多

법으로 많은 이를 이롭게 한다

- 2017년 공익법센터 어필 연간보고서 중에서 -

평화를 꿈꾸며 어필이 문을 연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난민신청자의 수는 약 10배 가까이 늘었지만 난민인정률은 오히려 3분의 1로 줄었고, 외국인들을 무기한으로 구금할 수 있는 법은 여전하여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이 기약 없이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 많이 해외로 진출하였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필은 평화를 상상하며, 한국과 세계의 곳곳을 누비고 활동했습니다. 난민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와 제주까지 오가고, 아시아 이웃 나라에도 난민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염전에서 오랫동안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였던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내몰려 있는 이주여성원들의 상황을 국내외에 보고하였습니다. 제네바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고, 이러한 활동들을 더 잘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필은, 고국에서의 어려움과 지난한 난민인정 절차로 인해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결국엔 희망을 잃지 않고 웃으며 삶을 일구어가는 난민들로부터, 오랜 착취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진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삶의 의지를 다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로부터 평화를 일구어낼 수 있는 힘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 힘으로 어필은 어려워진 현실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보다 더 풍성하고 힘있게 상상하며 평화를 일구어나가겠습니다.

‘난민 복서 이혹산’. 챔피언이 되어서 한국에 정착할 지위를 얻지 못하면 쫓겨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권투선수. 언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알려진 아싼은 군대에서 지속적인 학대와 착취를 당하다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차 한국에 도착하여 친구 에뚜비와 함께 탈출해 난

민신청을 했던 친구입니다. 이후 아싼과 에뚜비는 어필의 조력과정을 통해 다행히도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구금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평범치 않은 위험에서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어필의 법적 조력 속에서 아싼과 에뚜비는 죽음의 위협으로의 추방이 아닌, 한국에서의 안전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2017년 12월 31일 인천공항 국제선 터미널. 난민 모함메드는 ‘도착’으로 표시되었는데 아직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한 아내와 네 명의 자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헤어진 지 3년이 넘은 모함메드 가족이, 공항에서 그렇게나 길었던 한 시간반을 기다려 서로 얼싸안은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피고가 2015.12.2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어필이 대리한 판결문의 이 한 문장을 통해 모함메드는 드디어 가족을 만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필은 이처럼 언제나 난민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는 그렇게나 어려운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에서 많은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새롭게 정치권력이 교체된 지금도,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안전한 삶을 찾아 정착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2016년에는 전국 법원에서 난민승소 하급심 판결이 단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필은 2017년에 난민승소 하급심 7건의 판결 중 4건의 승소판결을 만들었고, 그 밖에 중요한 법리가 담긴 난민귀화 불허처분취소의 승소, 난민에 관한 형사사건에서의 무죄판결도 만들어냈습니다. 난민들에 대한 다양한 상담과 법적인 도움, 난민인정절차제도의 개선에 대한 연구사업, 해외단체를 통한 연대사업, 난민법 및 관련 법규 개정운동, 그리고 정부와의 협상에 이르기까지 어필은 난민들의 옆에서, 난민들을 돕고 법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와 권리를 한국사회에 번역해내는 일을 쉽 없이 기쁘게 해왔습니다.

■ 공익법센터 어필 APIl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공익법센터 어필은 난민, 구금된 외국인, 무국적자, 인신매매피해 외국인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법인입니다.

* 어필은 2016년부터 청파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